

## 최고의 판단 수단인 후각: 히브리 성경의 후각 묘사를 중심으로

정대준(광신대)

### 1. 서론

인간이 가진 감각 가운데 어떤 감각이 다른 감각보다 중요하다고 그 순위를 매기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현대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감각은 시각과 청각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인은 다양한 정보를 첨단 기기들을 사용하여 매 순간 눈과 귀를 통하여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렇게 습득한 정보는 인간만이 유용할 수 있는 것이다. 시각과 청각을 제외한 후각 같은 감각은 오직 직접적으로만, 즉 대면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물적인 감각, 즉 하등한 감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sup>1</sup> 시각과 청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녹화나 녹음을 통하여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고 인간이 원하는 대

1 김병국, "인간의 후각, 냄새의 역할과 문화사", 「대한이비인후-두경부외과학회지」 66.9 (2023), 577.

로 변형과 조절을 할 수 있으므로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감각 역시 고등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현대 사회와 비교하여 고대 사회에서 감각에 대한 인식은 어떠했을까? 우리는 고대인의 감각에 대한 생각의 한 예시를 히브리 성경의 다양한 표현에서 발견할 수 있다. 다양한 시각과 청각에 대한 언급과 더불어 빈번하지는 않지만, 히브리 성경에서 후각에 대한 여러 묘사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그들이 시각과 청각은 물론 후각과 같은 현대인이 본능적인 것, 혹은 동물적인 감각으로 생각하여서 정보 습득의 수단으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감각까지도 그 가치를 인정했다는 것을 드러낸다.

후각은 오랜 시간 동안 정보 습득의 방식으로 등한시 받은 것이 사실이다.<sup>2</sup> 사람들은 후각을 동물적인 감각으로 여겨서 코를 통해 얻은 정보는 과학적이거나 철학적이기 못하다는 인식을 가져왔다. 그러나 최근의 후각에 대한 연구 결과는 이러한 편견을 무너뜨린다. 인간은 다른 어떤 동물보다 예민한 후각을 가지고 있으며, 코를 통해 얻은 정보를 가지고 반응하며 판단하고 있음을 최근의 과학적 연구는 증명하고 있다.<sup>3</sup>

본 연구에서는 히브리 성경에 등장하는 오감 중 사람들에게 시각과 청각보다 그 가치를 덜 인정받는 것처럼 보이는 후각에 관한 표현을 집중하여 조사하고, 그러한 표현이 번역 성경을 읽는 현대 독자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히브리 성경에는 우리가 예상

---

2 앤-소피에 바위치, 「냄새: 코가 뇌에게 전하는 말」(김홍표 옮김), (서울: 도서출판 세로, 2020), 21. 원제는 Ann-Sophie Barwich, *Smellosophy: What the Nose Tells the Mind*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20).

3 베틀리나 파우제, 「냄새의 심리학」(이은미 옮김), (서울: 북라이프, 2021), 9-10. 원제는 Bettina M. Pause, *Alles Geruchssache: Wie unsere Nase steuert, was wir wollen und wen wir lieben* (München: Piper, 2020).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후각 혹은 인간의 후각에 관한 표현이 많이 등장하지만, 그것들은 번역 성경을 읽는 독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독자 또한 그것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대인들이 다른 감각보다 후각을 무시하는 데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고 그러한 성향을 반영한 번역의 결과일 수 있다.

본 연구는 먼저 인간의 오감 중에서 동물적 감각으로 무시되어 오던 후각을 과학계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시작할 것이다.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과학계에서는 인간의 후각을 시각이나 청각보다 뒤떨어지는 감각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현대인의 후각에 대한 편견을 드러나게 한다. 더불어 언어적, 문화적으로 후각과 그것에 관련된 표현이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토대로 히브리 성경에 나타나는 후각 관련 표현이 현대인들의 후각에 대한 견해와 같은지 비교해 볼 것이다. 이를 위해 히브리 성경에 등장하는 후각과 관련된 모든 표현을 수합 한 후, 야웨 하나님에 관한 것(신적 표현)과 인간에 관한 것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두 표현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검토할 것이다. 히브리 성경에서 후각에 관련된 표현은 코(또는 분노)를 의미하는 단어 **קַיִס**와 냄새(향기 혹은 바람)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어근 **חַוֵּחַ/חַוֵּחַ**를 사용하여 묘사한다. 히브리어 어근 **חַוֵּחַ/חַוֵּחַ**는 여러 품사 형태로 히브리 성경에 사용되는데, 그렇기에 본문에서 그 의미를 확정할 때 문법적인 검토는 물론 문맥을 철저히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 표현과 관련한 여러 본문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후각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오역으로 보이는 이사야 11:3과 아모스 5:21 등의 표현이 실제적으로는 후각을 통하여 판단함을 선언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전후 문맥과 문법적인 구조, 그리고 본문에서 언급되는 다른 감각인 시각과 청각을 연결하여 해석함을 통해 밝

힐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고대 이스라엘인은 후각으로 인지되는 것을 중요한 정보로 여겼으며 시각과 청각을 통한 판단 보다 우수함은 물론 더 객관적으로 생각했다는 것과 현대인처럼 그 감각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낼 것이다. 고대 이스라엘인은 시각과 청각 같은 감각은 쉽게 속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런 이유로 후각을 중요한 판단의 수단으로 여겼을 수 있다. 이는 현대인인 우리가 정보 전달과 분석의 주된 수단으로 여기는 시각과 청각과 더불어 후각 등 다른 감각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 또한 무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히브리 성경에 묘사되는 후각에 관한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번역 성경의 번역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하며 독자를 위한 그에 따른 해석이 무엇일지 탐색하며 더 나은 번역 결과물을 양산해 내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2. 후각은 무시되어야만 하는 감각인가?

인간의 오감 중에서 가장 오래 기억되는 감각은 후각이다. 히브리 성경에는 후각, 즉 향기나 냄새에 관한 언급이 빈번하게 등장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후각은 사회적으로는 물론 기독교 전통에서 무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보는 것과 듣는 것을 통해 얻는 정보를 우선시하고, 시각과 청각을 자극함으로 감각적 즐거움을 추구하는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성향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며 냄새 맡음으로 무언가를 판단하는 하나님과 사람에 관한 히브리 성경의 표현 방식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 1) 후각과 후각 시스템에 관한 과학계의 최근 연구 동향

현재 후각 연구에 대한 과학계의 동향은 상당히 흥미롭다. 사회적으로 후각을 본능적이고 동물적인 감각으로 무시했던 영향으로 후각과 그것에 관련된 연구는 오랜 시간 동안 진척되지 못하였다.<sup>4</sup> 그러나 이러한 후각에 무관심했던 경향은 코로나19 감염병이 유행하면서 완전히 달라진다. 그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후유증 중 하나인 “후각 상실” 때문이다.<sup>5</sup> 이는 냄새 맡지 못함이 미치는 인간 삶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여전히 후각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상태이며 계속된 연구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sup>6</sup>

최근 후각에 대한 연구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후각 시스템은 매우 가소성이 있는 구조로, 다양한 경험에 의해 변화 발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마우스 실험에서 임박한 발충격을 암시하는 특정 냄새를 배운 후 후각 자극 시 후각 수용 세포에서 유발되는 출력량이 배우기 전보다 증가됨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후각 경험이나 연상 훈련이 후각 수용 세포의 유전자 발현이나 생존 등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sup>7</sup>

이러한 연구 결과는 후각은 계속된 훈련이나 경험을 통해 더 정확하게 그것과 관련된 정보, 즉 냄새를 더 효과적으로 분석해 낼 수 있도록 정교화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시각과 청각 등 다른 감각 시스템도

---

4 배우용, “후각의 최신 기초 연구 동향”, 「대한이비인후-두경부외과학회지」 58.10 (2015), 663. 배우용은 후각 연구의 획기적 전환점을 Buck(벅)과 Axel(액셀)의 “냄새 수용체와 후각 시스템의 조직”이라는 연구로 보고 있다. 그들은 이 연구로 2004년에 노벨생의학상을 받았다.

5 심영덕, “문학 속에 나타난 ‘냄새’의 기능 연구”, 「문화와 융합」 45.8 (2023), 638.

6 배우용, 윗글, 663.

7 윗글, 664.

반복된 훈련이나 경험을 통해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겠지만, 후각의 자극 반응 양상과는 비교 불가하다. 특히 인간은 코로 1조 종류의 향기나 악취를 분간할 수 있는 반면, 눈으로는 겨우 500만 가지의 색을 구별할 수 있을 뿐이며,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 대역도 한정적이다. 인간은 너무 큰 소리나 아주 작은 소리는 듣지 못한다.<sup>8</sup> 시각과 청각 등 다른 감각 기관을 통한 정보 습득과 비교하여 볼 때 후각을 통한 그러한 과정은 훨씬 더 정교하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끈다. 인정하기 힘들더라도 최근 후각에 대한 과학적 연구 결과는 인간의 감각 중 후각을 통해 얻는 정보가 가장 정확하고 세밀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 2) 냄새와 관련한 언어적, 문화적 표현 양상

후각에 관한 표현이 우리말에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전은진의 연구는 흥미롭다. 그는 후각과 관련된 형용사를 분석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후각을 표현하는 형용사는 두 부류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형용사들은 모두 향기 또는 악취와 관련된 뜻을 품고 있으며, 향기와 관련된 형용사는 냄새의 의미와 더불어 관련 표현을 긍정적으로 이해하게 만들며, 악취와 관련된 형용사는 냄새의 의미와 함께 관련 표현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한다.<sup>9</sup> 고대 사회에서도 “악은 악취를 내뿜고 선은 향기를 풍긴다고 여겼다.”<sup>10</sup> 전체 언어적 사용 빈도에서 후각 관련 형용사의 사용이 아주 미미하다는 점은<sup>11</sup> 현대인이 실

8 김병국, *윷글*, 579.

9 전은진, “후각 형용사의 의미론적 연구”, 『국제어문』 51 (2011), 17-18, 20.

10 김병국, *윷글*, 581.

11 전은진, *윷글*, 45. 전은진은 “말뭉치에서 후각 형용사를 분석한 결과, 0.0005%의 사용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서 사용 비율이 매우 낮았고, 특정 단어를 제외하고는 후각 형용사들의 쓰임이 매우 저조하여 후각 형용사의 활용 방안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한다.

생활에서 후각을 천대하는 것처럼 언어 생활에서 조차 그렇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sup>12</sup>

그러나 이러한 희소한 냄새 관련 표현이 사람의 특성 혹은 활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의미의 범위가 발전된다는 점은<sup>13</sup> 히브리 성경에서 후각 관련 표현을 연구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진다. 냄새를 표현하는 형용사가 드물지만, 그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이고 화학적인 증상을 설명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평가와 판단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sup>14</sup> 일반적으로 향기를 좋아하고, 악취를 꺼리는 점에서 우리는 이미 그런 냄새를 풍기는 대상에 대해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은 자명하다.

현대화가 진행될수록 사람들은 악취보다는 향기를 원하게 되며, 인위적으로 좋은 냄새가 나게 만들기도 하고 악취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나 시설을 피하거나 멀리하게 된다.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처럼 현대 사회에서도 악취는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은 향기롭거나 악취가 제거된 공간에서 살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악취가 나는 곳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순간적으로 좋은 냄새와 그렇지 않은 냄새를 구별하는 후각의 능력은 인간의 생존과 연결되기도 한다. 특히 역겹다고 인식되는 냄새는 인간이나 동물 사체의 부패, 즉 죽음이나 음식물이 상했음을 암시하기 때문에 악취로 느껴지는 모든 냄새를 회피하고 싶어하는 반응은 생명을 지키려는 당연한 모습으로 볼 수 있다.<sup>15</sup> 따라서 현대인은 자신에게서 악취가 나서 혐오의

---

12 후각 관련 단어가 많지 않은 현상은 우리말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서종석, “후각과 냄새 그리고 언어적 표상”, 『언어와 언어학』 56 (2012), 122, 127을 보라.

13 전은진, 윗글, 44.

14 하홍규, “냄새와 혐오”, 『감성연구』 22 (2021), 34-35.

15 냄새를 통하여 병이 전염된다고 생각하는 시대도 있었다. 김병국, 윗글, 581.

대상이 되기보다는 아무 냄새가 나지 않은 상태를 더 긍정적으로 여기는 것 같다. 누구에겐가 자신의 냄새로 평가받기 보다는 아무 냄새가 나지 않음으로 평가 자체를 거부하려는 성향일 수도 있다. 후각 시스템 자체가 쉽게 피로하여 같은 냄새를 같은 공간에서 맡지 못한다는 점도 이런 경향을 설명해 준다.

고대 사회에서는 현대 사회에서보다 빈곤 계층이 냄새를 제거하기 더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향기는 상류 계층의 특징을, 악취는 하류 계층의 색채를 드러냈을 것이다.<sup>16</sup> 고대 사회에서보다는 감소하였을지 모르지만,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현상은 여전히 나타난다. 영화 기생충에서 각 등장인물의 계층을 나누는 것은 시각적, 청각적 요소가 아니라 후각적 요소, 즉 냄새의 다름이었다.<sup>17</sup> 특히 나쁜 냄새는 그 냄새를 풍기는 누군가를 소외시킨다는 점에서, 후각으로 인한 정보는 문화적으로 배척(판단)과 연결된다.<sup>18</sup> 상대적으로 냄새 관련 어휘가 많은 언어에서 악취 관련 단어가 향기 관련 단어보다 더 많다는 점도<sup>19</sup> 냄새 정보를 통해 누군가를 포용하기보다는 배척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그리고 그러한 배척의 판단은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히브리 성경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냄새 맡지 않음으로 드러나기도 한다.<sup>20</sup>

후각을 통한 정보 습득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언어적, 문화적으로 소외당하였던 것이 사실이지만, 냄새를 가지고 고대 사회부터 지금까지 판단의 수단으로 사용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

16 김병국, *윗글*, 581; 심영덕, *윗글*, 641.

17 하홍규, *윗글*, 45.

18 심효원, “공동체적 행위로서의 후각”, 『비교문학』 90 (2023), 168.

19 서종석, *윗글*, 122.

20 아모스 5:21c를 직역하면 다음과 같다. ‘그리고 내가 너희 총회들에서 냄새 맡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단순히 향기와 악취에 대한 포용이나 배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냄새의 퍼짐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후각을 통해 전달된 정보는 감각적으로 수용하고 분석하는 정보적인 측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냄새와 관련된 여러 요소와 환경을 분석하고 성찰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sup>21</sup>

### 3. 히브리 성경에서 냄새에 관한 표현

히브리 성경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오감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신 것으로 묘사하며, 하나님도 인간처럼 오감을 가진 존재로 언급한다. 히브리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보시기도, 들으시기도, 드시기도, 만지시기도, 그리고 냄새 맡으시기도 하는 분이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오감을 가지고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과 교제한다. 이러한 감각적 친밀함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인간에게만 주어진 것이기도 하다. 다른 창조물 역시 오감을 가졌지만, 그것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간처럼 친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오감 중 시각과 청각과 관련된 표현은 한글 버전이나 영어 버전과 같은 번역 성경을 통하여 자주 접할 수 있지만 다른 감각들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또한 후각과 관련된 언급을 번역 성경에서 하고 있지만 독자가 그것을 무시하거나 놓치기도 한다. 하지만 히브리 성경에서 시각과 청각은 물론 후각도 중요한 감각으로, 그리고 판단의 수단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은 눈여겨 볼

---

21 이경훈, “냄새 맡는 인간, 냄새 나는 텍스트: 한국 근대문학과 냄새”, 『구보학보』 23 (2019), 174.

만하다.

다른 감각과 비교하여 후각과 관련된 정보는 누군가를 속이기 어렵다. 특정한 어떤 냄새는 그것이 향기이든 악취이든 상관없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의 침투를 막을 수 없다.<sup>22</sup> 이러한 후각과 관련된 정보의 속성 때문에 히브리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판단이나 선택의 수단으로 후각이 사용됨을 묘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히브리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후각 혹은 그것과 관련된 표현에 주의를 기울여 내레이터가 독자에게 전달하려는 의도를 놓쳐서는 안된다. 히브리 성경에 표현된 후각과 관련된 연구가 국외에서는 간혹 시도되었지만,<sup>23</sup> 국내에서는 전무하다는 점은 이러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대표적으로 히브리 성경에서 후각과 관련된 표현은 ‘코’ 혹은 ‘분노’를 의미하는 단어인 **קַיִס**와 ‘냄새’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어근 **חַיִס/חַיִר**를 사용하여 언급한다. 그러므로 위 두 단어의 용례를 히브리 성경에서 살펴보면 후각과 관련된 표현은 물론 후각을 통하여 습득한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 1) 히브리 성경에서 **קַיִס**의 용례

**קַיִס**의 사전적 의미는 다양하다. 기본적으로 사람이나 동물의 신체 기관인 ‘코’를 의미하며 때로는 코를 포함한 얼굴의 일부분 혹은 얼굴

---

22 이미영, “빛새마의 침묵을 깨다: 가부장성을 벗는 영혜와 아프로디테를 상상하기”, 『목회와 상담』 33 (2019), 169.

23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P. A. H. De Boer, “An Aspect of Sacrifice” in *Studies in the Religion of Ancient Israel* (VTSup 23; Leiden: Brill, 1972), 27-47; Ian D. Ritchie, “The Nose Knows: Bodily Knowing in Isaiah 11.3”,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87 (2000), 59-73; Arie Shifman, “A Scent’ of the Spirit: Exegesis of an Enigmatic Verse (Isaiah 11:3)”,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31 (2012), 241-249를 보라.

전체를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이 단어는 본문에서 ‘분노’를 의미할 때도 있다.<sup>24</sup> 이러한 의미 확장은 코의 외부 정보 습득의 기능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코를 통하여 어떤 냄새가 향기인지 악취인지를 분간함으로써 드러낼 수 있는 반응 혹은 판단 중 가장 심각한 것인 ‘분노’가 @ a;의 다른 의미로 고착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냄새는 공기의 흐름 혹은 바람을 통하여 전파되기 때문에 어떤 공간의 분위기를 후각 시스템을 통한 냄새 정보로 파악한다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

히브리 성경의 용례를 살펴보면 **אָס**가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분노를 의미할 경우 동사 **הָרַחֵם**와 함께 등장한다. 히브리 성경에 등장하는 **אָס הָרַחֵם** 구문을 직역하면 ‘(누구의) 코가 뜨거워졌다 혹은 달아올랐다’이다. 동사 **הָרַחֵם**만으로도 충분히 누군가 화가 났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동사와 더불어 **אָס**를 사용하는 것은 분노할 수 있는 정보를 코를 통하여 습득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다. 즉 코가 뜨거워질 정도로 후각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가 부정적임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으로 보인다. 그리고 앞서 후각 시스템의 분력 능력이 시각이나 청각 시스템보다 월등하다는 점은 코를 통해 분석한 자료를 통해 최종적으로 분노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 할 수 있다.

히브리 성경에서 동사 **הָרַחֵם**를 사용하여 누군가의 분노를 표현하는 경우는 94회 등장하는데, 그 중 **אָס**와 함께 쓰인 용례는 56회이다. 이 용례들은 다시 야웨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하는 경우와 사람의 분노를 표현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아래 <표 1>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אָס הָרַחֵם** 구문은 하나님의 분노를 나타내는 경우가 사람의 화남을 표현하는 것보다 두 배 이상 많이 등장한다. 야웨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도

24 **אָס**의 자세한 의미는 HALOT, 76-77을 참고하라.

קָנָה קָרָה 구문에서는 대부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향해 있다는 것도 특징적이다.<sup>25</sup> 이처럼 야웨 하나님의 코를 통한 분노의 배경이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와 그분을 향한 배신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하나님의 후각을 통한 정보 분석은 정확하다.

표 1. 히브리 성경에서 קָנָה קָרָה 구문의 용례

야웨 하나님의 분노	사람의 분노
출 4:14; 22:24[MT 23절]; 32:10, 11; 민 11:1, 10, 33; 12:9; 22:22; 25:3; 32:10; 32:13; 신 6:15; 7:4; 11:17; 29:26; 31:17; 수 7:1; 23:16; 삿 2:14, 20; 3:8; 6:39; 10:7; 14:19; 삼하 6:7; 24:1; 왕하 13:3; 23:26; 대상 13:10; 대하 25:15; 욥 19:11; 42:7; 시 106:40; 사 5:25; 호 8:5; 합 3:8; 숙 10:3 (총 38회)	창 30:2; 39:19; 44:18; 출 32:19, 22; 민 22:27; 24:10; 삿 9:30; 삼상 11:6; 17:28; 20:30; 삼하 12:5; 대하 25:10; 욥 32:2(2회), 3, 5; 시 124:3 (총 18회)

그러나 사람의 분노는 코를 통하여 냄새를 맡고 분위기를 분석함에도 독자가 평가하기에 때로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도 등장 인물의 입장에서 그 상황을 평가한다면 분노를 표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을 독자는 본문의 정황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면 창세기 39:19에서 보디발이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표출한 분노는 정당하다. 그러나 그가 요셉에게 자신의 분노를, 즉 자신의 코를 뜨겁게 하지 않은 이유는 아내의 말에 대한 세심한 평가를 하고

25 합 3:8의 경우에만 여호와와 그의 코(קָנָה; 당신의 코)가 강(들)에 대하여 화를 냈다고 언급한다. 이 절에서 언급되는 강은 같은 절의 바다와 시적 평행을 이룬다. 따라서 이 절에 등장하는 강과 바다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지칭한다기보다는 시적 표현으로써 야웨 하나님의 대적 세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Francis I. Andersen, *Habakkuk* (AB 25; New York: Doubleday, 2001), 317-318을 보라.

있음을 암시한다.<sup>26</sup> 강한 냄새에 코는 쉽게 피로를 느껴 그 냄새에 무감각해지지만, 새로운 냄새는 미세하더라도 금방 인식할 수 있다는 점<sup>27</sup> 후각을 느끼는 기관인 코를 사용하여 분노를 표현하는 히브리어의 언어적 섬세함을 유감없이 드러낸다.

이는 “의도적으로 숨겨진 정황을 파악하는, ‘냄새를 채다’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sup>28</sup> 따라서 **וַיַּחַר אָפּוֹ** 구문 중에서 대상을 언급하지 않는 경우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노여움을 나타내기 보다는 분노의 주체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화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표 2. 히브리 성경에서 **וַיַּחַר אָפּוֹ** 구문 중 사람의 분노를 나타내는 경우

장절	MT	분노의 주체	대상
창 30:2	<b>וַיַּחַר-אָפּוֹ יַעֲקֹב בְּרַחֵל</b>	야곱	라헬
창 39:19	<b>וַיַּחַר אָפּוֹ</b>	보디발	언급 없음
창 44:18	<b>וְאֵל-יַחַר אָפּוֹ בְעֵבְרָה</b>	요셉	당신의 종(유다)
출 32:19	<b>וַיַּחַר-אָפּוֹ מֹשֶׁה</b>	모세	언급 없음
출 32:22	<b>אֵל-יַחַר אָפּוֹ אֲדֹנָי</b>	내 주(모세)	언급 없음
민 22:27	<b>וַיַּחַר-אָפּוֹ בַלְעָם</b>	발람	언급 없음
민 24:10	<b>וַיַּחַר-אָפּוֹ בַלָּק אֵל-בַּלְעָם</b>	발락	발람
삿 9:30	<b>וַיַּחַר אָפּוֹ</b>	성읍 장관 스불	언급 없음
삿 14:19	<b>וַיַּחַר אָפּוֹ</b>	삼손	언급 없음

26 빅터 해밀턴, 「창세기 II」(임요한 옮김),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8), 571. 원제는 Victor P. Hamilton, *The Book of Genesis: Chapter 18-50*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95).

27 심영덕, *읽기*, 645.

28 심효원, *읽기*, 165.

삼상 11:6	וַיַּחַר אַפּוֹ מְאֹד	사울	언급 없음
삼상 17:28	וַיַּחַרְאֵף אֶלְיָאֵב בְּדָוִד	엘리압	다윗
삼상 20:30	וַיַּחַרְאֵף שָׁאוּל בִּיהוֹנָתָן	사울	요나단
삼하 12:5	וַיַּחַרְאֵף דָּוִד בְּאִישׁ מְאֹד	다윗	그 사람(나단의 우화 속 부자)
대하 25:10	וַיַּחַר אַפָּם מְאֹד בִּיהוּדָה	그들(이스라엘 군대)	유다
욘 32:2	בְּאֵיזֵב חָרָה אִפּוֹ	엘리후	욘
욘 32:3	וּבְשִׁלְשֵׁת רַעֲיוֹ חָרָה אִפּוֹ	엘리후	욘의 세 친구
욘 32:5	וַיַּחַר אִפּוֹ	엘리후	언급 없음
시 124:3	בְּחַרּוֹת אַפָּם בָּנוּ	그들(대적)	우리

히브리 성경에서 **אָף**를 사용하는 경우는 총 276회인데, 이 단어가 분노를 의미하는 경우는 앞서 **אָף** **חָרָה** 구문처럼 ‘분노’를 의미하는 다른 단어와 함께 등장한다. 신체 기관인 코를 의미하는 경우는 **אָף** 홀로 본문에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코를 포함한 얼굴의 일부분이나 얼굴 전체를 나타내는 경우는 **אָרְזָה**나 **אָרְזָה**를 수반하여 얼굴을 땅에 숙임을 표현한다.<sup>29</sup> 누군가에게 존경이나 경외심을 드러낼 때 히브리 성경은 ‘얼굴을 땅으로 향한다’라는 표현 대신에 ‘코를 땅으로 향한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sup>30</sup> 일반적으로 “사회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냄새를 인지하고 구분하는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한다.<sup>31</sup> 따라서 코를 땅으로 향하는 행동은 상대방의 냄새를 맡고 판단하지 않

29 **אָף**의 용례와 의미에 대해서는 정대준, “내러이터는 사무엘상 1:6에서 브inna를 짜증나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광신논단』 32 (2022), 31-38을 보라.

30 창 19:1; 42:6; 48:12 등을 보라.

31 김병국, *윗글*, 580.

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존경과 경외의 대상에게 코를 땅에 대고 그것을 막음으로 냄새 맡기를 거부하는 적극적인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표 1>에서 하나님의 코가 그분의 백성에게 향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백성에 대한 ‘야웨 하나님의 능력’과 ‘우월함’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사람의 코도 <표 2>에서처럼 가족적으로 사회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그렇지 않은 자에게 향하고 있는 것은 야웨의 능력과 사람의 그것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처럼, 사람 사이에도 그런 차이가 존재함을 효과적으로 나타낸다.

야웨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실 때(야웨의 입장에서는 날숨, 사람의 입장에서는 들숨) 눈이나 귀 등 다른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코를 통해 그렇게 하셨다는 것(창 2:7)은 코의 호흡 기능과 더불어 냄새를 맡는 기관으로써의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드러낸다. 코를 통하여 얻는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호흡을 멈춰야 하는데 그것은 생명까지 위협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코(@a:)’라는 후각 기관은 냄새를 막음으로 판단하는 것을 호흡이라는 생명 유지 기능과 더불어 다른 감각 기관과는 달리 멈추지 않고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감각 기관이라고 볼 수 있으며, 히브리 성경에서도 @a:라는 단어를 통해 신체 기관인 ‘코’와 그것을 통해 판단의 의미(분노)를 각 본문에서 중의적인 방식으로 드러낸다.

## 2) 히브리 성경에서 כִּי / כִּיָּ의 용례

히브리어 어근 כִּי와 כִּיָּ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들 어근에서 파생된 단어들은 두 의미로 분류할 수 있는데 “눕다,” “광활하다,” 또는 “안심하다”라는 의미와 “숨 쉬다,” “불다,” 또는 “냄새를 맡다”라는

뜻을 가진다.<sup>32</sup> 어근 **רוח/ריח**는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냄새 혹은 향기와 관련된 의미에서 점차 그 의미 범위가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 냄새는 공기의 순환을 통하여 넓은 곳으로 확산되며, 공기의 순환은 바람으로 나타나고 특히 좋은 냄새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근 **רוח/ריח**가 다양한 의미를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두 유추 가능한 의미를 띄고 있다. 냄새를 맡는 행위는 숨 쉬는 것을 통하여 실행 가능하므로 숨쉬기와 냄새 맡기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sup>33</sup>

### (1) **ריח**의 용례

먼저 어근 **רוח/ריח**에서 유래한 명사 **ריח**의 히브리 성경에서 쓰임을 살펴보자. **ריח**는 ‘냄새’라는 의미를 가지며 히브리 성경에 58회 등장한다. **ריח**는 본문에서 좋은 냄새 혹은 친근한 냄새를 나타낸다. 야웨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의미하는 경우 명사 **נִיחִיחַ**(니호아흐: 달램, 화해)와<sup>34</sup> 함께 사용된다.<sup>35</sup> “야웨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표현은 야웨께서 제

32 T. Kronholm, “**רוח**”, *IDOT* 13, 361-362. 히브리어 **רוח**는 호흡을 의미할 때 들숨과 날숨으로 세분화하지 않는다.

33 히브리어가 아닌 다른 언어에서도 호흡과 바람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동물과 인간 사이의 교감을 묘사하면서 사이 몽고메리는 호흡과 바람, 그리고 정신을 의미하는 단어들의 유사성에 대해 언급하는데 다른 언어에서도 히브리어와 같은 유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사이 몽고메리, 『아마존 분홍돌고래를 만나다』(송영조 옮김), (서울: 돌고래, 2022), 168을 보라. 원제는 Sy Montgomery, *Journey of the Pink Dolphins: An Amazon Quest* (New York: Simon & Schuster, 2000).

34 *HALOT*, 696.

35 야웨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נִיחִיחַ ריח**(향기로운[달램, 화해의] 냄새)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창 8:21; 출 29:18, 25, 41; 레 1:9, 13, 17; 2:2, 9, 12; 3:5, 16; 4:31; 6:8, 14; 8:21, 28; 17:6; 23:13, 18; 26:31; 민 15:3, 7, 10, 13, 14, 24; 18:17; 28:2, 6, 8, 13, 24, 27; 29:2, 6, 8, 13, 36. 겔 6:15, 19; 20:28의 경우에서도 ‘향기로운 냄새’라는 표현이 등장하지만 그것을 우상에게 바치는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내용이다.



물을 시각이나 청각을 통해서 판단하지 않고 후각을 통해 평가하신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그러나 야웨는 이스라엘이 그분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의 제물이 아무리 향기롭더라도 코를 막으실 것이다(나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맡지 않을 것이다. 레 26:31). 제물의 향기로운 야웨께 드러지는 제물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 요소이지만, 그러나 제물을 바치는 자가 향기롭지 못하다면 제물의 향기는 악취로 여겨져 야웨는 코를 막으신다. 야웨는 제물의 아름다움이나 소리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그것의 냄새로 평가하신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더불어 제물을 바치는 자도 순종이라는 향기를 내뿜어야 한다는 점은 제물과 바치는 자가 외모나 소리의 일치가 아니라 같은 향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드러낸다.

제물의 향기를 의미하는 본문 외에 **קִיָּא**가 쓰이는 경우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이다. 시각을 상실한 이삭은 후각을 가지고 예서의 냄새를 확인한다. 그 냄새는 예서의 옷 냄새이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아들 냄새이기도 하며, 들판의 냄새이기도 하다(창 27:27). 보지 못하는 이삭은 들을 수는 있었지만(창 27:22), 청각으로 예서인지 야곱인지 분별해 내지 않고, 먼저 촉각으로 그리고 마침내 후각으로 그가 예서임을 확신한다. 냄새에 대한 형용사가 발달하지 않은 것은 히브리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누군가의 냄새, 무언가의 냄새로 그 냄새가 어떤 것인지 드러내는 것은 우리말에서의 경우와 유사하다. 제물의 향기를 제외하고는 물 냄새(욥 14:9), 기름 냄새(아 1:3; 4:10), 그의 냄새(아 1:12), 꽃 냄새(아 2:13), 옷 냄새(아 4:11), 사과나무 냄새(아 7:9), 합환채 냄새(아 7:14), 레바논 냄새(아 4:11; 호 14:7)로 다양하게 표현한다. 이러한 특정 향기는 독자로 하여금 그 냄새를 떠오르게 하며 긍정적인 평가와 좋은 추억을 떠오르게 하며 본문 속으로 독자를 끌어들이는다.

냄새가 변하지 않음을 통해 누군가를 평가하기도 한다. 히브리 성경에서 모양은 변하지 않은 냄새를 가졌다고 묘사되는데 그들의 민족

적 성품이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임을 냄새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표현한다(렘 48:11). 악취는 향기로 바뀌어야 하며, 향기를 가졌더라도 평가자가 계속해서 같은 냄새를 맡게 되면 그 냄새를 맡을 수 없으므로, 더 나은 다른 향기로 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그 향기는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모양의 변화되지 않는 냄새는 악취나 향기의 부정적인 측면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sup>36</sup> 이스라엘 자손의 관리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우리들의 냄새를 바로와 그의 종들 눈에 악취가 되게 했다’(출 5:21)라고 비난하는데,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의 냄새가 바로를 비롯한 이집트 사람들에게 향기로웠지만 모세와 아론의 행동 때문에 혐오스러운 냄새로 바뀌었다고 평가하는 것 같다. 냄새를 눈으로 맡는 자로 바로와 그의 종들을 이해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언급은 자신들의 냄새를 이집트 사람이 제대로 맡으며 평가하고 있는지 독자에게 혼란스러움을 전달한다. 이전보다 고된 노역은 그들을 육체적으로 더 냄새나는 자로 만들지 모르지만, 야웨는 그 냄새를 그들의 고통으로 이해하실 것이다.

## (2) 명사 𐤀𐤍의 용례

다음으로 히브리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파생 명사 𐤀𐤍을 살펴보자. 히브리 성경에 𐤀𐤍은 389회 등장한다.<sup>37</sup> 명사 𐤀𐤍은 기본적으로 크게 두 의미군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공기’나 그것의 흐름을 나타내는 ‘바람’ 그리고 ‘생명’ 자체와 그것을 존재하게 하거나 지속하게 만드는 ‘호흡,’ ‘영’을 의미한다.<sup>38</sup> 𐤀𐤍이 등장하는 본문에서 문맥에 따라

36 Jack R. Lundbom, *Jeremiah 37-52* (AB 21C; New York: Doubleday, 2004), 266-267.

37 H. -J. Fabry, “𐤀𐤍”, *TDOT* 13, 372. 𐤀𐤍은 히브리어 부분에 378회 다니엘의 아람어 부분에 11회 등장한다.

38 윗글, 368, 373. 김혜윤은 𐤀𐤍의 의미를 “① 자연 기류 현상으로서의 의미(바람), ② 신

완전히 별개의 의미로 사용된다고 선불리 생각할 수 있지만, 행동의 측면에서 본다면 바람이 공기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처럼, 호흡도 공기의 움직임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일반적으로 바람은 대기를 순환시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에게 에너지원을 분배함으로써 그들이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을 제공한다. 호흡도 마찬가지로 공기를 몸속에 순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생명을 유지시켜 준다는 점에서 바람의 역할과 유사하다. 바람이 가져온 냄새를 호흡을 통해 인식하여 판단하는 것은 **רוח**가 냄새의 이미지를 갖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따라서 **רוח**에서 유래한 동사가 '냄새 맡다'<sup>39</sup>라는 의미를 지닌 것은 당연할 것이다.

자연 현상인 **רוח**(바람)를 일으키시는 분이 야웨 하나님이고, 생명 현상인 **רוח**(호흡)를 발생하게 만드시는 분도 야웨 하나님이라는 점에서 **רוח**는 자연에 속해 있을 때나 사람에게 속해 있을 때나 하나님의 속성과 연결점을 갖는다. 그리고 그 속성은 **רוח**의 흐름을 통해 세상 곳곳에 퍼지고 **רוח**를 인식하는 기관을 통해 드러난다. 이와 같이 **רוח**가 갖는 여러 가지 의미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독특해 보이나 하나의 개념으로, 즉 하나님의 성품을 상징하는 것으로 응집된다.<sup>40</sup> 하나님의 성품은 '냄새'라는 정량화할 수 없는 실체로 사람에게까지 드러나는데 그것을 그분의 임재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해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도 하나님의 냄새를 풍길 수 있으며, 죄로 그분의 성품을 거스르면 다른 냄새가 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냄새(**רוח**)는 하나님과 그

---

학적 의미(주님의 영, 하느님의 영), ③ 인간학적 의미(인간을 구성하는 숨과 정서/지능)으로 구분한다. 김혜운, 「구약성경의 '루아흐'(רוח): 의미론적 고찰과 개념상의 진화 연구」, 『카톨릭신학과사상』 68 (2011), 40.

39 Fabry, 윗글, 368.

40 이에 대해 김혜운은 “하느님은 **רוח**로 (물리적인 차원이든 추상적인 차원이든) 인간 삶 안에 활동하시고 개입하시며 자신의 존재를 계시하”신다라고 설명한다. 김혜운, 윗글, 41.

분의 백성이 존재하는 공간의 공기(רוח)를 가득 채우게 된다. 하나님의 코와 인간의 코는 그것을 인지하며 판단한다.

히브리 성경에 등장하는 רוח의 용례를 모두 살펴보는 것은 어렵지만 몇 가지 예들을 살펴보면 רוח가 본문에서 단순하게 한 가지 의미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미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① 창세기 1:2의 רוח

רוּחַ אֱלֹהִים מְרַחֵף עַל-פְּנֵי הַמַּיִם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개역개정)

창세기 1:2의 רוח를 '영'으로 보아야 할지 '바람'으로 이해해야 할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인 것 같다. 빅터 해밀턴은 여러 주장을 정리하면서 본문에서 רוח가 "과괴적인 힘"을 의미한다면 "바람"을 의미할 것이고, "유익을 끼치는 힘"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영/성령"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자신은 여기에서는 "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짓는다.<sup>41</sup> 그러나 내레에터는 독자에게 רוח라는 단어를 전달하면서 한 가지 의미로 이해하기를 강요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רוח를 '호흡'이나 '바람' 그리고 '영'과 같은 그 단어가 품고 있는 다양한 의미 그대로 본문에 적용하여 창세기 1:2을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이 부분을 해석하는데 유익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רוח를 '호흡'으로 이해한다면, 태초의 혼돈 속에서 어떤 생명체도 존재하지 않는 그 순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혼돈을 질서로, 생명 없음에서 호흡이 있는 생명으로 세상을 만들어가실 분이심을 역동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된다. 마찬가지로 רוח를 '바람'으로 본

41 빅터 해밀턴, 「창세기 1」(임요한 옮김),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6), 120. 원제는 Victor P. Hamilton, *The Book of Genesis: Chapter 1-17*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90). 이에 관한 논쟁은 같은 책 117-123을 보라.

다면, 바람의 움직임이나 강력함(강풍)<sup>42</sup> 등을 암시하며 하나님의 역동성과 능력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 된다. רוּחַ를 ‘영’으로 해석한다면, 자신의 창조물에게 생명을 부여하시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효과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רוּחַ를 번역할 때 특정한 한 의미로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독자가 본문의 의미 중 단면 만을 읽도록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익하지 않다. 하나님의 רוּחַ는 물 위에서 다니고 있다. 여전히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이 있는 상태지만 하나님의 רוּחַ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적으로 보이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있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순식간에 긍정적인 분위기로 바뀌기에 충분하다. 하나님의 רוּחַ(숨, 바람, 영)의 활동에 의해 모든 곳은 하나님의 רוּחַ(냄새/향기)로, 즉 그분의 흔적으로 가득하게 될 것임을 רוּחַ라는 단어는 드러낸다.

## ② 창세기 3:8의 רוּחַ

רוּחַ הַיּוֹם לְבָנָה (그 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개역개정)

창세기 3:8의 רוּחַ는 분명히 자연 속에서 공기의 순환을 나타내는 ‘바람’인 것이 분명하다. 여러 영역본과 개역한글 등에서는 전치사 לְ가 ‘기온’을 의미한다고 여겨 “날이 서늘할 때”로 해석한다. 하지만 전치사 לְ의 기본적인 의미인 ‘소유’나 ‘유익’을 더하여<sup>43</sup> רוּחַ הַיּוֹם을 직역하면 ‘그 날의 바람을 위해/바람에 속한’이다.<sup>44</sup> 따라서 רוּחַ הַיּוֹם לְבָנָה은

42 해밀턴은 רוּחַ를 수식하는 רוּחַ הַיּוֹם을 하나님으로 해석하지 않고, 최상급 형용사로 본다. “강력한 바람”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한다. 해밀턴, 윗글, 117.

43 전치사 לְ의 용법에 대해서는 로날드 윌리엄스, 「윌리엄스 히브리어 구문론: 제3판」(김영욱 옮김), (서울: 그리스, 2012), 153-160을 보라. 원제는 Williams, Ronald J., *Williams' Hebrew Syntax, Third Edition*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07).

44 케네스 매튜스는 전치사 לְ를 제외하고 “그 날의 바람”이라고 직역한다. 케네스 매튜스, 「창세기 1」(권대영 옮김),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8), 290. 원제는 Kenneth Matthews, *Genesis 1:1-11:26* (NAC; Nashville: B&H Publishing, 1996).

최종적으로 ‘그 날의 바람이 있는 그 정원에서’로 번역할 수 있다.

제프리 니하우스(Jeffrey Niehaus)는 이 문구를 “폭풍우의 바람에서”로 해석하며 청각적인 측면으로 야웨 하나님의 목소리와 연결시킨다.<sup>45</sup> 그러나 **רוח**는 청각적 이미지보다는 그것의 어원에서 알 수 있듯이 후각적 요소를 강조한다. 따라서 ‘그 날의 바람’은 그 날의 ‘냄새’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후 이전의 냄새와 달라진 그 날을 **רוח**로 표현하고 있다. 창세기 3:8에서 **רוח ה' ורוח**을 독자의 이해를 위해 단순히 표면적인 의미인 “그 날 바람이 불 때”라고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이를 통해 본문이 독자에게 전하려고 하는 의미를 제대로 드러내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히브리 성경에 사용되는 400여 회에 육박하는 모든 **רוח**를 창세기 1:3과 3:8의 경우처럼 모두 분석할 수는 없다. 하지만 독자가 히브리 성경에서 **רוח**를 접할 때마다 앞서의 방식으로 그 단어를 분석한다면 내레이터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의도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내레이터가 어떤 단어를 선택하여 독자에게 그 의미를 전달할 때는 그것이 가진 다양한 의미를 독자가 알아차리기를 바라며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רוח**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이 단어는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여러 의미는 어원적으로 같은 의미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다. 더불어 **רוח**가 본문에 등장할 때마다 이 단어는 시각적, 청각적 의미를 그 배후에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후각적 이미지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

45 Jeffrey Niehaus, “In the Wind of the Storm: Another Look at Genesis III 3”, *Vetus Testamentum* 44.2 (1994), 263-267.

#### 4. 후각 관련 표현의 오역 사례

히브리어 **קָוָה**가 호흡과 후각을 담당하는 신체 기관을 의미하면서 감정적인 부분인 분노를 표현하기도 하는데, 번역 성경은 문맥에 따라 **קָוָה**를 코나 코를 포함한 주변 기관으로 혹은 누군가의 화남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체로 잘 번역하고 있다. **קָוָה**의 용례와는 달리 **חַוָּה/חַוָּה**에서 파생된 단어들은 코가 담당하는 기능적인 측면을 의미할 때 사용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부류의 단어들은 코가 담당하는 호흡(숨),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유지되는 생명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리고 생명의 본질인 영을 의미하기도 한다. 더불어 코는 숨을 쉬면서 동시에 냄새를 판별하기 때문에 **חַוָּה/חַוָּה**에서 파생된 단어는 냄새를 표현하기도 한다. 누군가 숨을 쉬면서 어떤 냄새를 인지했다는 것은 이미 그(녀)가 냄새를 만들어내는 대상에 대한 판단을 마쳤다는 것을 묘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기의 흐름을 통하여 특정 냄새는 누구에게든 전달되며 어떤 장소에 가득차서 그곳의 분위기를 바꾸거나 주도한다. **חַוָּה/חַוָּה**에서 파생된 단어가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본질적으로 여러 의미의 연관성 때문이다.<sup>46</sup>

히브리 성경의 표현 중 눈에 띄는 것은 **חַוָּה/חַוָּה**가 동사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대부분 이 단어가 동사로 사용될 때는 ‘냄새 맡다’라는 의미로 본문에서 쓰이는데 번역 성경에서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현대 독자를 위해 전혀 다른 의미로 바꾸어 버린 경우가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 히브리 성경에서 ‘냄새 맡다’로 해석해야 하는 동사 **חַוָּה/חַוָּה**의 쓰임을 살펴보고 번역 성경에서 이 동사를 그 의미 그대로 ‘냄새 맡다’로 독

46 몽고메리는 데이비드 에이브럼의 말을 인용하여 “숨과 공기와 영혼은 아주 깊은 원초적 관계를 맺고 있다. … 시체에는 부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그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들의 연관성을 강조한다. 몽고메리, 윗글, 168.

자에게 전달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추적하며, 이미 살펴본 후각이 나타내는 이미지와 더불어 본문의 동사를 ‘냄새 맡다’로 이해해야만 하는 근거를 제시할 것이다.

### (1) חַוּחַ/חִיחִ의 동사형

히브리 성경에 חַוּחַ/חִיחִ의 동사 형태는 총 13회 등장한다. 이 중에서 칼 어간과 푸알 어간을 사용하여 의미를 표현하는 경우는 각각 한 번뿐이다. 칼 어간을 사용하는 욥기 32:20을 데이빗 클린스는 “그것은 내게 위안일 것이다”라고 직역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엘리후가 말함을 통해서 스스로 초조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sup>47</sup> 여러 영어 번역본 중에 KJV은 이 부분을 “내가 생기를 되찾도록/상쾌해지도록 말할 것이다(I will speak, that I may be refreshed.)”라고 해석하면서 동사 חַוּחַ/חִיחִ가 칼 어간에서도 호흡과 관련된 의미를 가졌다고 본다. 개역개정版的 “시원할 것이라”는 번역도 KJV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볼 때 HALOT이 제시하는 동사 חַוּחַ가 칼 어간에서 가지는 의미인 “불쾌감 등을 없애주다/안도하게 하다(to relieve)”는<sup>48</sup> 광범위하게 호흡을 통하여 생명을 지속하게 만드는 것과 동시에 좋은 냄새를 맡는 것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푸알 어간을 사용하는 경우인 예레미야 22:14는 번역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데 남성 복수 분사 형태로 쓰인 חַוּחִים의 선행사가 무엇인지 모호하기 때문이다. 앞선 선행사의 후보들인 세 개의 명사가 남성 단수(בַּיִת)이거나 여성 복수(מוֹת, מְלוֹיֹת, עֲלֵיוֹת)여서 חַוּחִי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알 수 없다.<sup>49</sup> HALOT이 설명하는 “넓찍한(wide, specious)”이라

47 데이빗 J. A. 클린스, 「욥기 21-37」(한영성 옮김),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2009), 407. 원제는 David J. A. Clines, *Job 21-37* (WBC 18A; Nashville: Thomas Nelson, 2006).

48 HALOT, 1196.

49 피터 크레이기 외, 「예레미야 1-25」(권대영 옮김),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2013), 537.



는 뜻으로 여기에서 단순히 사용되었을 수 있지만,<sup>50</sup> 이 단어를 통해 그 곳이 바람(공기)의 흐름을 막지 않는 공간임을 암시하는 것 같다. 따라서 מְרוּחָיִם מְרוּחָיִם וְעַלִּיּוֹת מְרוּחָיִם이라는 문구는 מְרוּחָיִם가 바브로 연결된 וְעַלִּיּוֹת מְרוּחָיִם를 동시에 수식하는 것으로 여겨 ‘널찍한 규모와 (널찍한) 다락방이 있는 집’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표 3. 히브리 성경에 등장하는 רוּחַ/רוּחַ의 동사 형태

장절	MT	동사	개역개정
창 8:21	וַיִּרַח יְהוָה אֶת־רוּחַ הַנְּיָחָח	히필, wayyiqtol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창 27:27	וַיִּרַח אֶת־רוּחַ בְּגָדָיו	히필, wayyiqtol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출 30:38	לְתַרְיִחַ בָּהּ	히필, 부정사	냄새를 맡으려고
레 26:31	וְלֹא אֲרִיחַ בְּרוּיִחַ נִיחָחְכֶם	히필, yiqtol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신 4:28	וְלֹא יִרְיַח	히필, yiqtol	냄새도 맡지 못하는
삿 16:9	בְּתַרְיָחוֹ אִשׁ	히필, 부정사	불탄
삼상 26:19	יָרַח מִנְחָה	히필, yiqtol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나이다
욥 32:20	וַיִּרְוַח־לִי	칼, weyiqtol	시원할 것이라
욥 39:25	וַיִּרַח מִלְחָמָה	히필, yiqtol	싸움 냄새를 맡고
시 115:6	אֵף לָהֶם וְלֹא יִרְיַחוּן	히필, yiqtol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원제는 Peter C. Craigie et. al., *Jeremiah 1-25* (WBC 26; Dallas: Word Books, 1991).

50 HALOT, 1196.

사 11:3	וַתְּרִיחוּ בִּירְאֵת יְהוָה	히필, 부정사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렘 22:14	וְעֲלִיזוֹת מְרוֹחִים	푸알, 분사	넓은 다락방
암 5:21	וְלֹא אָרִיחַ בְּעֲצָרְתֵיכֶם	히필, <i>yiqtol</i>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나머지 경우는 동사 רווח가 모두 히필 어간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히브리 성경에서 ‘냄새 맡다’라는 기본 의미로 쓰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개역개정판의 경우 창세기 8:21, 사사기 16:9, 사무엘상 26:19, 이사야 11:3, 그리고 아모스 5:21을 제외하고는 그 의미 그대로 해석하고 있다. 창세기 8:21의 경우 향기라는 명사가 이미 등장하고 있으므로 반복을 피하기 위해 וַיִּרַח를 ‘맡다’라고 번역한 것 같지만 이는 냄새와 제물을 동일시하는 표현으로 보인다. 내레이터가 아웨게 드리는 제물이라고 하지 않고 ‘향기로운 냄새’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에 주목한다면 이 부분은 ‘아웨게서 그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셨다’라고 번역해야 한다. 고든 웬함은 아웨게서 자신에게 드리진 제물의 냄새를 직접 맡으셨다고 표현한 단 한 번의 사례이고 이후에 그분의 평가가 이어진다고 설명한다.<sup>51</sup> 이러한 표현 방식은 아웨게서 냄새를 통하여 판단하시는 중요한 예이기도 하다.

사사기 16:9의 경우 וַבְּתַרְיָחוֹ אֵשׁ는 ‘불’과 더불어 ‘끈’이 닿음만을 의미하는가? 영어 번역본들은 이 문구를 “그것(끈)이 불에 닿았을 때 (when it touched the fire)”로 해석하며 촉각적 이미지를 부각시킨다. 이는 רווח의 의미를 배제한 번역이다. 개역개정판 역시 이 문구를 “불탄”으로

51 고든 웬함, 「창세기 1-15」(박영호 옮김),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2001), 365. 원제는 Gordon Wenham, *Genesis 1-15* (WBC 1; Dallas: Word Books, 1987).

번역하면서 그을린 냄새에 대한 이미지를 없애 버렸다. 내레이터가 사사 삼손이 자신을 묶은 줄을 끊어버리는 그의 괴력을 누구라도 끊어버릴 수 있는 불에 탄 끈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러한 촉각적 이미지에 내레이터가 후각적 요소를 첨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삼손이 보면서 사사직을 수행했을 때보다 보지 못하면서 그 직을 행했을 때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삿 16:28-30). 따라서 이 문구의 촉각적 이미지는 후각적 의미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독자는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이 문구는 ‘불탄 냄새가 나는’으로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사무엘상 26:19의 경우는 대부분의 번역본에서 후각적 요소를 찾기 어렵다. 창세기 8:21에서처럼 ‘야웨께서 제물을 냄새 맡으시길 원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향기로운 냄새(רִיחַ הַבְּיִחָח)가 제물(מִנְחָה)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번역자들은 동사 נָחַח를 ‘냄새 맡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맡다’로 이해한 것 같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창세기 8:21에서처럼 동사가 가진 의미 그대로 ‘냄새 맡다’라고 번역하면 여기에는 후각을 통한 야웨의 판단이 담기기 때문에, 제물의 냄새를 맡으신 야웨의 판결은 창세기 8:21에서처럼 다윗에게 긍정적인 것이다. 사울에게 다윗을 해하도록 이끄신 분이 야웨가 맞다면, 이제 제사의 냄새를 그분이 맡으심으로 자신에게 유익한 새로운 판결을 하실 것이라고 다윗은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 야웨께서 자신의 코를 막고 냄새를 맡지 않으실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긴장감은 흐른다.

창 8:21      נִיחַח יְהוָה אֶת-רִיחַ הַבְּיִחָח

삼상 26:19      נָחַח יְהוָה אֶת-עֲמִנְחָה

이사야 11:3과 아모스 5:21의 경우는 앞서 사례들보다 더 심각한 번역의 오류를 담고 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נִרְיָח**는 모두 ‘기뻐하다’라고 해석된다.<sup>52</sup> 게리 스미스는 이사야 11:3의 경우 이 단어가 “냄새를 맡다”를 뜻하지만(창 8:21; 레 26:31), 은유적으로 좋은 냄새를 맡아 느끼는 ‘기쁨, 즐거움’의 관념도 표현한다(암 5:21)<sup>53</sup> 라고 설명한다.<sup>53</sup> 그의 주장이 옳다면, 이사야 11:3과 같이 부정사로 표현하는 모든 경우를 ‘기뻐하다’ 혹은 ‘즐거워하다’로 일관성있게 번역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번역하면 출애굽기 30:38 경우 야웨의 거룩한 향을 냄새 맡기 위해 만드는 것이 금지된 것이지 즐거워하는 것이 금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바른 번역이 아니다. 사사기 16:9에서는 의미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게 된다.

출 30:38                    **לְהִרְיָח בָּהּ**    냄새를 즐거워하려고  
 사 16:9                    **בְּהִרְיָחוֹ אֵשׁ**    그것이 불을 즐거워하였을 때  
 사 11:3                    **וְהִרְיָחוֹ בִּירְאֵת יְהוָה**    그가 야웨를 경외함으로 즐거워서

마찬가지로 이사야 11:3에서 소위 ‘메시아’는 야웨를 경외함으로 즐거워서 어떤 일(보기와 듣기)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사야 11:2에서 4번 반복되는 **וְהִרְיָחוֹ**를 통하여 내레이터는 후각과 관련된 메시지를 전달 것임을 이미 암시하고 있다. 내레이터는 ‘**וְהִרְיָחוֹ יְהוָה**(야웨의 영/냄새)’를 반복해서 2절에서 3번 더 유사한 단어로 풀어 설명하고 있다.<sup>54</sup> **וְהִרְיָחוֹ יְהוָה**

52 KJV의 경우 동사 **וְהִרְיָחוֹ**를 사 11:3에서는 “속히 이해하게 할 것이다”라고, 암 5:21에서는 “냄새 맡다”로 번역한다.  
 53 게리 스미스, 『이사야 1』(권대영 옮김),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9), 348. 원제는 Gary V. Smith, *Isaiah 1-39* (NAC; Nashville: B&H Publishing, 2007).  
 54 김희석은 **וְהִרְיָחוֹ**를 “그의 냄새 (혹은 즐거움)”으로 해석하지만 2절에서 4번 등장하는 명사 **וְהִרְיָחוֹ**가 3절에서 동사형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만 설명하면서 2절과 3절의 관계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다. Hee Suk Kim, “Eschatological Pattern of the Spirit of the Lord in

가 그 위에 임하면 그도 야웨의 냄새를 가지고 그분처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וְנָחָה עָלָיו רוּחַ יְהוָה  
 רוּחַ חֲכָמָה וּבִינָה  
 רוּחַ עֲצָה וְנִבְיָרָה  
 רוּחַ דָּעַת וְיִרְאַת יְהוָה:

2절의 **רוּחַ יְהוָה**에 대한 마지막 언급인 **‘יִרְאַת יְהוָה’**(야웨에 대한 두려움)를 3절에서 다시 언급하면서 그 사이에 **וְנִבְיָרָה**를 위치시켜 효과적으로 후각에 대한 이미지를 극대화하고 있다. 그는 3절 후반후에 언급하는 것처럼, 시각과 청각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후각으로 그들을 판단할 것이다. 이러한 판결은 하나님의 판단과 닮았다.<sup>55</sup> 냄새를 통해 판결하거나 심판하는 것은 현대인의 생각으로는 원시적이고 본능적이고 동물적인 것으로 느껴지지만 히브리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판단과 같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냄새를 통한 판단은 “인간적인 수준을 능가하는 성품에 대한 언급으로 보인다.”<sup>56</sup>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후각을 통한 감별이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를 이미 고대 이스라엘 사람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사야 11:3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가 냄새를 맡아서’로 번역해야 한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아모스 5:21은 ‘너희 성회들을 내가 냄새 맡지 않을 것이다’라고 해석해야 한다. 이미 야웨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축제를 미워하고 거부한다고 선언하셨다. 그리고 다시 그들의

Isaiah 11:1-5, 「한국기독교신학논총」 72 (2010), 11, 13을 보라.

55 스미스, 윗글, 348.

56 존 오스왈트, 「이사야 1」(이용중 옮김),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5), 328. 원제는 John Oswalt, *The Book of Isaiah: Chapters 1-39*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86).

모임에 대해서 냄새 맡지 않겠다고 말씀하신다. 21a와 b는 21c와 병행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21ab의 절기는 21c에서 성회로, 미워함과 거부함은 냄새 맡지 않음으로 극대화된다. 미움과 거부가 야웨의 판결을 통해 선언된 결과물이라면 이제 야웨는 그들에 대한 판결 조차도 거부하시는 형국이다. 그들의 냄새 조차도 맡기 싫어하시는 야웨께서 그들의 제물은 거들떠 보시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후각과 관련된 묘사는 야웨 혹은 사람의 우월하고 적절한 판단 수단으로 히브리 성경 곳곳에서 나타난다.

שָׁנֵאתִי [חַיִּיכֶם]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한다(21a).

מֵאַסְתִּי חַיִּיכֶם 내가 너희 절기들을 거부한다(21b).

וְלֹא אֲרִיחַ בְּעֶצְרוֹתֵיכֶם: 내가 너희 성회들을 냄새 맡지 않겠다(21c).

## 5. 결론

앞서 우리는 후각을 동물적이거나 본능적인 감각으로 여겨 오랜 시간 동안 판단의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원시적인 것으로 생각해 왔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후각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최근의 후각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연구를 통해 근거 없음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으며 사람들은 자신이 의도하든 그렇지 않든 계속해서 호흡과 더불어 냄새를 맡음으로 다른 사람과 상황에 대해 판단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고대 이스라엘인이 후각을 중요한 정보 전달 요소로 여겼으며 판단의 수단으로 인정했다는 것과 현대인처럼 그 감각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호흡과 냄새를 맡는 기관인 ‘코’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 **אָזְנוֹ**와 냄새(향기)나 그것을 전달하는 공기의 흐름, 그리고 호흡을 통하여 생명을 유지하는 생명 자체나 그것의 근원인 영을 의미하는

www.kci.go.kr

히브리어 어근  $\text{חָרַר}/\text{חִיר}$ 에서 파생된 단어 연구를 통해 밝혀냈다.

히브리 성경에 드러난 후각과 관련된 표현을 토대로 유추해본다면, 고대 이스라엘인은 시각과 청각 같은 감각은 쉽게 속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이유로 후각을 중요한 판단의 수단으로 여겼을 수 있다. 그들이 섬기는 야웨는 후각 기관인 코를 통해서 분노하시며, 그분의 성품을 가진 인간도 그렇게 분노한다고 히브리 성경은 표현한다. 야웨는 누구보다 냄새를 잘 맡으시는 분이시며 그분은 이사야 11:3에 언급하는 것처럼 메시아도 시각과 청각으로 하지 않고 야웨 자신처럼 후각으로 심판하게 하실 것이다. 더불어 야웨는 아주 심각한 경우 냄새를 맡지 않으시기도 한다. 즉 코를 막아버리시는 것이다. 이는 악취에 대해 우리가 하는 행동과 유사하다. 이러한 후각과 관련된 생동감 있는 히브리 성경의 표현은 현대인인 우리가 정보 전달의 주된 수단으로 여기는 시각과 청각과 더불어 후각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 또한 히브리 성경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무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앞서 살펴본 후각과 관련된 심각한 오역은 오랜 시간 동안 후각을 원시적이고 믿지 못할 감각으로 낙인찍은 결과물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와 계속된 후속 연구를 통하여 우리는 히브리 성경에서 나타나는 후각과 관련된 표현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하여 그런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내레이터의 의도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 참고문헌

- 게리 스미스, 「이사야 1」(권대영 옮김),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9). 원제 Smith, Gary V., *Isaiah 1-39* (NAC; Nashville: B&H Publishing, 2007).
- 고든 웬햄, 「창세기 1-15」(박영호 옮김),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2001). 원제 Wenham, Gordon, *Genesis 1-15* (WBC 1; Dallas: Word Books, 1987).

www.kci.go.kr

- 김병국, “인간의 후각, 냄새의 역할과 문화사”, 「대한이비인후-두경부외과학회지」 66.9 (2023), 577-583.
- 김혜윤, “구약성경의 ‘루아호’(לואו): 의미론적 고찰과 개념상의 진화 연구”, 「카톨릭 신학과사상」 68 (2011), 9-49.
- 데이빗 J. A. 클린스, 「욥기 21-37」(한영성 옮김),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2009).  
원제 Clines, David J. A., *Job 21-37* (WBC 18A; Nashville: Thomas Nelson, 2006).
- 로날드 윌리엄스, 「윌리엄스 히브리어 구문론: 제3판」(김영욱 옮김), (서울: 그리심, 2012). 원제 Williams, Ronald J., *Williams' Hebrew Syntax, Third Edition*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07).
- 배우용, “후각의 최신 기초 연구 동향”, 「대한이비인후-두경부외과학회지」 58.10 (2015), 663-666.
- 베티나 파우제, 「냄새의 심리학」(이은미 옮김), (서울: 북라이프, 2021). 원제 Pause, Bettina M., *Alles Geruchssache: Wie unsere Nase steuert, was wir wollen und wen wir lieben* (München: Piper, 2020).
- 빅터 해밀턴, 「창세기 I」(임요한 옮김),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6). 원제 Hamilton, Victor P., *The Book of Genesis: Chapter 1-17*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90).
- \_\_\_\_\_. 「창세기 II」(임요한 옮김),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8). 원제 Hamilton, Victor P., *The Book of Genesis: Chapter 18-50*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95).
- 사이 몽고메리, 「아마존 분홍돌고래를 만나다」(승영조 옮김), (서울: 돌고래, 2022).  
원제 Montgomery, Sy, *Journey of the Pink Dolphins: An Amazon Quest* (New York: Simon & Schuster, 2000).
- 서종석, “후각과 냄새 그리고 언어적 표상”, 「언어와 언어학」 56 (2012), 113-132.
- 심영덕, “문학 속에 나타난 ‘냄새’의 기능 연구”, 「문화와 융합」 45.8 (2023), 635-647.
- 심효원, “공동체적 행위로서의 후각”, 「비교문학」 90 (2023), 155-180.
- 앤-소피에 바위치, 「냄새: 코가 뇌에게 전하는 말」(김홍표 옮김), (서울: 도서출판 세로, 2020). 원제 Barwich, Ann-Sophie, *Smellosophy: What the Nose Tells the Mind*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20).
- 이경훈, “냄새 맡는 인간, 냄새 나는 텍스트: 한국 근대문학과 냄새”, 「구보학보」 23 (2019), 173-231.
- 이미영, “뱃세바의 침묵을 깨다: 가부장성을 벗는 영혜와 아프로디테를 상상하기”,



- 「목회와 상담」 33 (2019), 169-204.
- 전은진, “후각 형용사의 의미론적 연구”, 「국제어문」 51 (2011), 9-47.
- 정대준, “내러이팅은 사무엘상 1:6에서 브닌나를 짜증나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광신논단」 32 (2022), 29-49.
- 존 오스왈트, 「이사야 1」(이용중 옮김),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5). 원제 Oswalt, John, *The Book of Isaiah: Chapters 1-39*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86).
- 케네스 매튜스, 「창세기 1」(권대영 옮김),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8). 원제 Matthews, Kenneth, *Genesis 1:1-11:26* (NAC; Nashville: B&H Publishing, 1996).
- 피터 크레이기 외, 「예레미야 1-25」(권대영 옮김),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2013). 원제 Craigie, Peter C., et. al., *Jeremiah 1-25* (WBC 26; Dallas: Word Books, 1991).
- 하홍규 “냄새와 혐오”, 「감성연구」 22 (2021), 29-57.
- Andersen, Francis I., *Habakkuk* (AB 25; New York: Doubleday, 2001).
- De Boer, P. A. H., “An Aspect of Sacrifice” in *Studies in the Religion of Ancient Israel* (VTSup 23; Leiden: Brill, 1972), 27-47.
- Fabry, H. -J., “𐤏𐤍𐤁”, *TDOT* 13, 365-402.
- Kim, Hee Suk, “Eschatological Pattern of the Spirit of the Lord in Isaiah 11:1-5”, 「한국기독교신학논총」 72 (2010), 5-25.
- Kronholm, T., “𐤏𐤍𐤁”, *TDOT* 13, 361-365.
- Lundbom, Jack R., *Jeremiah 37-52* (AB 21C; New York: Doubleday, 2004).
- Niehaus, Jeffrey, “In the Wind of the Storm: Another Look at Genesis III 3”, *Vetus Testamentum* 44.2 (1994), 263-267.
- Ritchie, Ian D., “The Nose Knows: Bodily Knowing in Isaiah 11.3”,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87 (2000), 59-73.
- Shifman, Arie, “‘A Scent’ of the Spirit: Exegesis of an Enigmatic Verse (Isaiah 11:3)”,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31 (2012), 241-249.

#### 검색어

후각, 냄새, 판단 수단, 분노, 오역

[ ABSTRACT ]

## Olfactory Sense as the Best Means of Judgment: Focusing on the Description of Olfactory Sense in the Hebrew Bible

Dae-jun Jeong  
Kwangshin University

God created human beings with five senses. In the Old Testament, God is described as a being with five senses, just like human beings. God sees, hears, eats, touches, and smells. Human beings worship and commune with God with their five senses. This sensual intimacy is unique to human beings among God's creatures. Other creatures also have five senses, but their relationship to God is not as intimate as that of human beings. Of these five senses, visual and auditory senses are often encountered throughout the Old Testament, but other senses not frequently. Does the Hebrew Bible really emphasize visual and auditory senses, but ignore other senses?

In this article, we will take a closer look at the portraits of olfactory sense among five senses in the Hebrew Bible. Also, we will try to examine whether such depictions are properly expressed to modern readers. The Hebrew Bible contains many expressions of God's or human beings' olfactory sense than we might expect, but they tend to be undelivered to or ignored by the readers of the translated versions. This may be due to the fact that modern people neglect olfactory sense over other senses. Compared to other senses, olfactory sense is difficult to obstruct or

www.kci.go.kr

deceive. Thus, the Hebrew Bible frequently describes using olfactory sense as a means of judgment or selection of God or human beings. Therefore, it cannot be overemphasized that when reading the Hebrew Bible, we should pay attention to olfactory sense and the expressions associated with it.

key words

olfactory sense, smell, the means of judgment, wrath, mistranslation

투고일: 2024년 10월 15일

심사일: 2024년 11월 18일

게재 확정일: 2024년 11월 30일

[www.kci.go.kr](http://www.kci.go.kr)